이덕일의 '역사의 창'

물리적 통일과 화학적 통일

우리 역사에는 '후삼국'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다.

신라 말기 진성왕 6년(892) 견훤이 후백제 왕이라고 일컫고, 궁예가 신라 효공왕 5년(901) 고려(후고구려) 왕을 칭해서 신라와 함께 후백제·후고구려가 세워진 때였다. 이때는 이미 백제·고구려가 신라에게 멸망한 지 230년 이상 지난 때였다.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런 나라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물리적으로 통일했지 화학적 통합은 전혀 이루지 못했음을 뜻한다.

백제는 의자왕 20년(600)에 도성이 함락되었고,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패전하면서 완전히 망했다. 의자왕은 660년 나당 연합군이 부여성에 다가오자 웅진성으로 도주했다.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 융(隆)이 대좌평(大佐平) 천복(千福) 등을 거느리고 항복했는데, '삼국사기'는 신라의 태자 법민(문무왕)이 부여 융을 말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너의 아비가 내 누이를 죽여서 옥중에 묻었는데, 이것이 20년 동안 나를 마음 아프고 골치 썩게 했다. 오늘 네 목숨이 내 손안에 있다"라고 모욕했다고 전한다. 융은 땅에 엎드려 아무 말이 없었다.

'너의 아비가 내 누이를 죽였다'는 법민의 말은 18년 전인 의자왕 즉위 다음해(642년) 발생한 사건을 말한 것이다. 의자왕이 장군 윤충(允忠)을 보내 대야성(大耶城)을 함락시키자 성주 김품석(金品錫)과 그 부인 고타소가 자살하는데, 고타소가 태종무열왕의 딸이자 법민의 누이였다.

법민의 아버지 태종 무열왕도 마찬가지였다. 무열왕은 승전 잔치 때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자신은 대청마루 위에 앉고 의자왕과 그 아들 융은 마루 아래에 앉혔다. 심지어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게 했으니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들이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백제 장군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 운동에 나선 것이다. 흑치상지는 소정방에게 항복했는데, 소정방은 의자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크게 노략질했다. 이에 분개한 흑치상지가 장수 10여 명과 함께 도주해 백제 부흥의 기치를 들자 열흘이 되지 않아서 3만 군사가 모였고, 200여 성을 회복했다.

태종무열왕의 딸이자 법민(문무왕)의 누이인 고타소가 두 나라의 전쟁 와중에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은원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백제 장군 윤충이 고타소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라 왕실은 이를 개인적 은원으로 해석했고, 망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후백제·후고구려가 다시 등장했던 것이다.

견훤과 왕건이 신라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달랐다. 견훤은 신라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신라 경애왕 4년(927) 경주를 공격해 경애왕을 자살하도록 하고, 그 왕비를 취했으며 부하들이 경애왕의 비첩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사건으로 신라인들은 후백제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 반감은 왕건에 대한 호의로 이어졌다.

반면 왕건은 경순왕 5년(931) 경애왕의 뒤를 이은 경순왕을 방문해 극진한 예의를 다했고, 휘하 군사들에게도 일체의 노략질을 모두 금지시켰다. 신라 남녀들이 "예전에 견훤이 왔을 때에는 승냥이와 호랑이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왕공(王公 : 왕건)이 오니 부모를 보는 것 같다"면서 왕건에게 대거 귀부(歸附)했다. 김부식이 신라인의 관점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견훤이 신라인의 마음을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공방도 여기에서 크게 멀지 않다. 심지어 남북 단일팀 구성도 반대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의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극단적 대결 및 전쟁 구도로 갈 수는 없다. 왕건의 길, 즉 북한인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 짧게는 평화로 가는 길이자 멀게는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말해 준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현기증이 나는 이유

김 동 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가끔 현기증과 어지럼증의 차이를 물어보는 이들이 있다. 어지럼증의 증상 중의 하나가 현기증이다.

어지럼증은 가벼운 현기증 증상을 일으키는가 하면 실신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기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지난해 53세 여성 환자가 현기증으로 내원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내원 2개월 전 보건소에서 검진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으로 공원 주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어지럼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 환자는 중추신경성 병변에 대한 걱정이 심해 안과·이비인후과·신경과·심장 검사 등을 시행했다.

증상은 정확히 맞지 않았지만 메니에르병 진단 하에 치료했고 약간 호전됐으나 다음해 다시 재발했다.

지난해보다는 증상이 경미하고 서서히 좋아지면서도 자주 재발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확한 진단은 건강 염려증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됐다.

또 다른 사례로 병원을 찾은 67세 남성은 주기적으로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1년마다 정기 검진도 받고 별 탈 없이 지내던 환자였는데,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다고 호소해 진찰을 해보니 부정맥이 있었다.

그동안 약은 잘 먹고 있었으나 평상시 음주가 과해 부정맥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기증의 구체적인 증상은 모호한 표현으로 머릿속이 도는 느낌, 핑 도는 느낌, 머리가 어질어질한 느낌, 어질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흔들림, 아득한 느낌, 몸이 뜨는 느낌,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 비현실적인 느낌을 호소한다.

현기증의 원인도 다양해 심한 빈혈이나 부정맥, 저혈당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말초성이나 중추성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 전실신, 장티푸스나 장염, 감기 등 감염에 걸린 경우, 약물의 부작용, 턱관절장애 등 내부 장기의 문제와 수면 부족, 멀미, 해외 여행에 의한 시차 부적응, 임신에 의해서도 생리적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원인은 심인성으로, 과호흡 증후군·공황 장애·불안 장애·우울증·신경성·히스테리·건강 염려증·외상 후 증후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 중 과호흡 증후군에 의한 것이 제일 흔하다.

현기증은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특히 환자들 중 상당수는 지속되는 현기증과 관련해 내부 장기 문제를 걱정하기도 한다.

이들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병원에 가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치료는 원인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

현기증이 잘 발생하는 경우는 식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사람이 많은 무더운 실내, 극심한 통증, 장시간 서 있거나 음주 후나 피곤한 상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공황 장애 환자는 좁은 공간이나 밀집된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고소 공포증이 있는 경우 높은 곳에 가면 발병할 수 있어 예방법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가급적 피하고 인지 행동 치료를 받도록 한다.

현기증이 심할 때에는 가장 편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눈을 감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이때 꽉 조이는 옷을 입었다면 넥타이나 윗단추를 풀어 편안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기증은 움직일 경우 심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과호흡 증후군에 의한 현기증은 작은 종이 봉투나 비닐 봉투를 입에 대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도록 하며 호흡 조절 운동을 배우도록 한다.

예방법으로는 꽉 끼는 옷을 피하고,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스트레스 해소, 감정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 외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기 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해져라

정 석 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성장 절벽, 고용 절벽이라는 소위 3대 '절벽 사회'에 직면해 있다. 그중 고용 절벽은 청년 실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을 다시 경신했다고 한다. 2015년 9.2%, 2016년 9.8%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더더욱 집계된 실업자뿐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을 포함한다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고용 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추경 예산안 사용 최우선 순위를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고 했으며, 게다가 최근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책까지 발표했다.

그럼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블루오션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 기존 농업 방식에 정보통신 기술등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관리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팜등 농촌의 농업 현장이라고 필자는 감히 생각한다.

농림 생산과 서비스, 농림식품 가공과 유통 등은 모두 400만여 명 규모를 자랑하고 전체 산업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은 낮지만 실업률이 높은 현재와 같은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다'는 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업이 고용 절벽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업의 고용 창출 가능 인력이 2018년까지 61만 명에 달하며, 오는 2023년까지는 116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농업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차 산업과 관련한 지역 특화 사업과 귀농인 활성화 지원, 농산물 가공 및 체험 등 창업 지원 사업 등에서도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자는 농수산업 분야는 두드리면 누구나 열수 있는 문이라고도 표현한다. 농업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이 분야는 미래를 걸어도 될 만큼 유망하고 잠재력도 충분하다.

농수산업은 국가성장 동력인 '기초 산업이며 생명 산업'이다.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취업 절벽이라 부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농수산업에 도전하길 기대한다.

오랜 귀양살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실학자 거듭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업의 삼농(三農) 경영을 강조했다고 한다. 삼농의 첫째는 후농(厚農)으로 수익이 나는 농업, 둘째는 편농(便農)으로 편하게 하는 농업, 마지막 상농(上農)은 농민의 사회적 위상, 즉 지위 향상을 강조했다.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해, 정약용 선생의 삼농경영을 디딤돌로 삼아 제한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까지 강화시킬수 있는 단기간의 성과와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온 국민에 감동 안겨 준 정현의 4강 진출 쾌거

'아이스맨'(Iceman) 정현(22·세계랭킹 58위)이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4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현은 어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이번 대회 또 다른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을 3-0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세계 랭킹도 30위 안쪽으로 진입해 이전에 이형택(42)이 보유했던 한국인 역대 최고 순위 36위도 경신했다.

정현은 전날 열린 4회전에서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전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를 3-0으로 격침시키며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활약은 아시아 테니스와 호주 오픈 대회 역사도 바꾸고 있다. 정현은 무려 86년 만에 이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아시아 선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선수 저변이 취약하고 대중의 관심도 낮은 국내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극복하고 이뤄 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 그동안 테니스는 체력과 기술이 뛰어난 유럽과 미국 등 서양 선수들이 단연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현은 약점이었던 서브와 포핸드를 불과 몇 년 만에 부단한 노력으로 보완해 정상급으로 끌어올렸다. 젊은 나이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외신이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을 붙여 준 이유다.

정현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남자 단식과 단체전에서 2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강 신화는 이미 이뤘고 내친김에 결승 진출까지 넘본다.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의 메이저 대회 우승도 노려볼 만하다. 세계 톱 랭커들을 잇따라 격파하며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그의 유쾌한 반란이 결승전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합법과 불법 사이 '수제 담배' 관련법 보완을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직접 담뱃잎을 구입한 뒤 담배를 만들어 피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담뱃잎과 잎 분쇄기 그리고 담배 마는 기계 등을 비치해 놓은 '수제 담배' 판매점이 광주·전남에서만 20여 곳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이들 수제 담배는 아직 유해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 법망을 피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

수제 담배는 우선 가격이 한 갑당 2500원으로 저렴해 젊은 층과 저소득층 흡연자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또한 수제 담배는 순한 맛·중간 맛·독한 맛 등으로 분류해 흡연자들의 기호를 공략함은 물론 일반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 경고 그림·문구 대신 화려한 색상·캐릭터로 포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제 담배에 쓰이는 담뱃잎과 필터 등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흡연 시 안전성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KT&G와 BAT코리아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담배를 제조할 수 없으며, 매장에서 담배를 만들어 파는 행위도 '무허가 담배 제조'에 해당돼 불법이다. 그러나 이들 판매점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담뱃잎을 사서 매장에 비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 직접 담배를 만들어 피우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있다. 즉 개인이 담뱃잎을 구매해 만들어 피우는 단순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판매점들이 한 갑을 만드는 데 4~5분을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수제 담배를 꺼리는 소비자를 겨냥해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상에는 수제 담배를 만들어 택배로 보내 주는 사이트마저 있다. 모두 담배 불법 제조 및 판매이자, 탈세 행위이다. 따라서 수제 담배 판매점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데, 필요하다면 관련 법도 확실히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언론의 신뢰

'라디오는 내 친구'라는 어느 방송사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라디오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다. 굳이 좋아한다 말하지 않아도 의지가 되는 가까운 벗인 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사연들에 위로받고 행복해지곤 한다. 일하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즐기는 이들, 그 중에서도 KBS를 자주 듣는 이들에게 어제(24일)는 좀 반가운 날이었다.

즐겨 듣는 KBS FM 라디오에서는 오랫동안 "방송사 사정으로 재방송을 보내 드린다"는 멘트가 흘러나왔었다. KBS 구성원들의 파업 때문이었다. 지난 23일 총파업은 종료됐고 어제는 정상 방송, 그러니까 생방송이 이뤄진 첫날이었다. 지난해 9월 4일 총파업을 시작했으니 무려 143일 만이다.

오랜만의 만남이니 진행자도 청취자도 조금은 감격스러웠다. 클래식 프로그램에는 2600여 건이 넘는 청취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무 사랑했던 방송을 다시 듣게 돼 울컥했다" "고생하셨다" "반갑다" 등 격려의 메시지가 많았다.

어느 아나운서가 읽어 준 시 한 편은 긴 여운이 남았다. "어둠은 눈이 없어 뭉치고 손발이 없어 뭉치고 그리고 입이 없어 뭉친다. 어둠은 둘이라는 숫자를 몰라 뭉치고 어둠은 말이 없어 뭉치고, 집이 없어 뭉친다. 과거가 없어 뭉치고, 미래가 없어 뭉치고, 더욱 현재가 없어 뭉친다. 그러나 그대여,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와 나는, 뭉쳐서 독립한 저 어둠을 옷 벗고 만날 수 있는가. 존재가 없어 뭉치고, 뭉쳐서 빛이 된 저 한 송이 흑장미의 어둠을."(오규원의 '어둠의 힘')

또 다른 진행자는 "저간의 사정은 다 아실 거라며 앞으로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프로그램을 꾸려 가겠다"는 담담한 멘트를 전했다. 시를 읽어 주었던 중견 아나운서는 "처음 마이크를 잡은 날을 떠올린다"며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어쩌면 긴 파업이었지만 '공정 방송'을 염원하며 기다려 준 청취자의 격려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렬히 응원했던 그들이라도 언제든 냉정히 돌아설 수 있다. 신문 독자와 방송의 시청자·청취자의 신뢰를 잃는 건 순간이지만,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훨씬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